

新羅 景德王代(742~765)의 국내외정세와 對日外交

金 善 淑*

- 1. 머 리 말
- 2. 경덕왕대의 신라정세와 대일외교정책
- 3. 752년 金泰廉의 渡日背景과 그 의미
- 4. 日本의 新羅侵攻計劃과 新羅使의 渡日
- 5. 맺 음 말

1. 머 리 말

景德王代는 新羅政治史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景德王은 24년의 오랜 재위기간동안 성덕왕과 효성왕의 뒤를 이어 王權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政策을 펼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의 정치세력들은 왕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경덕왕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들 세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억제함으로써 왕권강화정책을 계속

* 동북아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추진할 수 있었다.

경덕왕대(742-765)는 특히 왕권이 매우 신장되던 시기로 그 영향이 신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경덕왕의 정책이 왕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당시의 외교관계,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대일외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는 왕권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덕왕대에 단행된 신라사의 일본과전은 모두 5회, 일본사의 신라과전은 3회에 불과하다. 이는 양국 사이에 진행된 대개의 교섭에 있어서 경덕왕의 재위기간이 성덕왕보다 짧은 24년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덕왕이 재위한 30여 년동안 양국 모두 11회를 파견한 점에 비한다면 소원한 관계였다. 그나마 진행된 양국의 외교도 752년과 764년을 제외하면 대개가 증여물과 같은 외교형식 등의 문제로 인해 충돌을 빚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입장 및 국내정세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은 그러한 측면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고대 동북아세계에 있어서의 渤海와 唐이라고 거대한 두 세력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은 발해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변화에 따라 신라가 발해 및 일본과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음은 물론이고 발해와 일본이 양국의 적대국인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친교관계를 맺은 것으로 설명해왔다.¹⁾ 이러한 통설적인 인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견해

1)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는 발해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발해와 일본 공동의 적으로서 '신라'를 설정하고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 발해와 일본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759년에서 763년에 걸쳐 진행된 일본의 소위 '신라정토계획'은 당의 '安史의 亂'과 관련하여 발해와의 군사적 도모를 통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주로 일인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거의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조이욱, 「8세기 중엽 발해와 일본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171-172쪽).

들도 있다.

즉, 당시 신라와 발해는 732년의 말갈과 당, 발해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한때 對峙狀態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지 않았으며 평화적인 교섭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그것이다.²⁾ 필자 역시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발해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변화가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경덕왕대의 신라정세와 대일외교정책을 검토해보고, 그 다음으로 경덕왕대에 이례적인 신라사절단이라 할 752년경 신라사 김태림의 渡日背景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일본의 신라 침략계획을 둘러싼 동북아정세 등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외 정세변화가 경덕왕대의 對日外交에서 과연 어떤 작용을 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경덕왕대의 신라정세와 대일외교정책

경덕왕이 즉위하기전 효성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王子가 없었다.³⁾ 이로 말미암아 효성왕대에는 왕비와 후궁세력 간의 알력⁴⁾ 및 그의 형제들을 둘러

- 2) 송기호, 『발해 문왕대의 개혁과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 6, 한국고대사학회, 1992.
김은국, 『新羅道를 통해 본 발해와 신라관계』, 『백산학보』 52, 백산학회, 1999.
구난희,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10, 1999.
조이옥, 앞의 논문, 2002: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2001.
- 3)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元年條에 의하면 경덕왕 현영은 효성왕의 同母弟라 한다.
- 4)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孝成王 4年條 8月에 의하면 “波珍浪永宗謀叛 伏誅 先是 永宗女入後宮 王絶愛之 恩渥日甚 王妃嫉妬 與族人謀殺之 永宗怨王妃宗黨 因此叛”이라 하여 파진찬 영종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이에 앞서 후궁으로 들어간 영종의 딸이 왕비의 질투

러싼 정치세력간의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경덕왕은 김순원·김순정 세력의 도움으로 王位를 차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⁵⁾

이처럼 신라의 왕권은 불안정했다. 경덕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王座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경덕왕은 효성왕의 弟이며 太子로서 왕위에 오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성덕왕 27년(728, 唐 開元 16)에 당으로 건너간 그의 형 無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가 머물고 있던 淨衆寺에까지 자객을 보낸 일이 있었다.⁶⁾

경덕왕은 왕위에 오르기전 이미 김순정의 딸인 三毛夫人과 혼인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경덕왕은 삼모부인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즉위 즉시 그녀를 출궁시키고 대신 김순정의 손녀이며 金義忠의 딸인 滿月夫人과 재위 2년만인 743년에 혼인하였다. 결국 경덕왕은 재위한 지 17년만인 758년에 그토록 원하던 왕자 乾運을 낳는데 겨우 성공할 수 있었고 출생한 지 불과 2년(760)도 안 된 王子 乾運을 급히 太子로 책봉하였다.⁷⁾

경덕왕의 아들에 대한 강한 집념은 왕권은 물론이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

로 인해 살해당하자 영종이 왕비종당을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대체로 김순원이라는 외척세력의 지위를 둘러싼 압력 내지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세에 대한 저항, 각 파벌간의 대립, 불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井上秀雄, 『新羅政治體制の變遷過程』, 『新羅史基礎研究』, 1974, 455-456쪽; 이호영, 『신라 중대왕실과 봉덕사』, 『사학지』 8, 1974, 11쪽; 김수태, 『신라 성덕왕·효성왕대 김순원의 정치적 활동』, 『동아연구』 3, 1983, 226쪽). 필자 역시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효성왕의 총애를 둘러싸고 벌어진 후궁과 왕비간의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왕좌를 둘러싼 각 세력간의 권력다툼으로 보고 있다.

- 5) 경덕왕, 즉 태자시절의 憲英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金順元·金順貞 등은 성덕왕대와 효성왕대의 왕비교체 및 현영의 태자책봉, 경덕왕과의 혼인관계 등을 통해 서로 상당한 친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연구원, 2003, 126쪽). 한편 김수태는 김순원과 김순정을 각각 전제주의 옹호세력과 반전제주의 세력이라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앞의 논문, 1983, 219-228쪽).
- 6) 『宋高僧傳』 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智詵禪師).
- 7) 『三國遺事』 卷1, 王曆 第三十五景德王 및 第三十六惠恭王條;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景德王 2年(743) 夏 4月條, 同王 17(758)年 秋 7月條, 同王 19(760)年 秋 7月條.

하기 위한 바램에서 비롯되었다.⁸⁾ 그 같은 경덕왕의 면모는 당시 신라 최고의 승려인 表訓大德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을 얻고자 했던 일화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⁹⁾ 그런데 경덕왕이 즉위한 해인 742년 10월(경덕왕 원년)에 日本國使가 來朝하였다.

그러나 경덕왕은 일본사를 접견하지 않았다.¹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시의 신라정세는 孝成王의 喪과 경덕왕의 등극 및 三毛夫人의 出宮 등으로 이어지던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조정에서는 일본사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일본사절이 先王의 죽음을 애도하고 경덕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¹¹⁾ 왜냐하면 신라조정은 日本國使가 자국에 來朝한 바로 직후인 경덕왕 2년 3월에 唐國에서 보낸 弔祭使·冊封使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일본조정이 비슷한 시기인 天平 13년(741)과 14년(742)에 遣新羅使를 임명한 일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만일 사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신라로부터 『三國史記』의 글대로 非禮를 받았다고 한다면 일본측의 怒한 문장이라도 『續日本紀』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경덕왕 원년의 日本國使의 新羅來朝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¹³⁾

8) 박해현은 반대세력이 無子를 구실로 정치적 공세를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순정 가문에서 새 왕비를 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삼모부인과 경덕왕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앞의 책, 2003, 126-127쪽).

9) 『三國遺事』卷2, 紀異 景德王 忠談寺 表訓大德條.

10)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元年(742)條 “冬十月 日本國使至不納”.

11) 이때 일본조정에서 신라에 사절을 파견한 것은 경덕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견해가 있다(김은숙, 「8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국사관논총』 29, 1991, 122쪽).

12)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2年 春 3月條.

13)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0, 1924, 53-54쪽.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점인 孝成王 末年(742)에 新羅使 金欽英 등 117명의 일행이 일본의 大宰府에 당도했을 때 일본조정에서는 새로운 수도의 宮室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라사절단을 入京시키지 않고 그곳에서 향연만을 베풀고 그대로 放還¹⁴⁾해 버린 일이 있었다.¹⁵⁾ 이 같은 일본 조정의 조치는 新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藤原廣嗣의 亂과 같은 일본 내에서 벌어지던 어수선한 정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¹⁶⁾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라에서도 경덕왕 즉위 초의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일본국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다고 본다면 일본사신이 신라에 왔던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경덕왕은 唐使와 다르게 일본사신을 직접 접견하지 않았다. 경덕왕은 재위 기간동안 父王이신 聖德王이 그랬듯이 왕권강화 및 국내안정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제반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唐과 매우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덕왕이 재위 24년간 11차례에 걸쳐 당에 사신을 파견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¹⁷⁾ 그러므로 경덕왕의 입장에서는 唐使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각별할 수밖에 없었으며 日本使에 대한 태도와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덕왕은 日本國使가 신라에 來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743년에 金序貞 등 新羅使 일행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물론 일본조정은 筑前に

14) ‘放還’에 대해 종래에는 주로 신라와 일본간의 관계악화를 전제로 하여 追放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파악해왔지만 국내사정에 따라 ‘사절을 돌려보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박석순, 「일본 울령국가의 왕권과 대 신라외교」,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신라사절 放還과 일본의 왕권」, 『일본고대국가의 왕권과 외교』, 경인문화사, 2002).

15) 『續日本紀』卷14, 聖武天皇 天平 14年(742)條.

16) 『續日本紀』卷13, 聖武天皇 天平 12年(740)條.

박석순은 일본이 신라사를 入京시키지 않은 요인으로 740년(天平 12) 9월에 일어난 太宰府의 藤原廣嗣의 亂과 그후 계속되던 귀족정변 및 太宰府의 폐지 등 복잡한 일본의 국내사정을 들고 있다(앞의 논문, 2002, 208쪽).

17) 조이욱, 앞의 책, 2001, 139-143쪽.

보낸 多治比真人土作과 葛井連廣成을 통해 신라사가 자국에 증여할 물품을 ‘土毛’라고 칭하며 物數만을 적어 제출한 일에 대해 常禮를 크게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라사절을 放却시켜 버렸다.¹⁸⁾

여기에서 신라사절이 贈與物을 ‘土毛’라 칭한 사례는 일본사서에 의하는 한 743년 이외에 그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일이다.¹⁹⁾ 또한 신라측이 대일증여물을 ‘土毛’이라고 하고 物數만을 적은 것에 대해 지적한 일도 없었다. 원래 ‘土毛’란 용어는 땅에서 나는 풀, 곡식, 채소 따위를 말한다.²⁰⁾

일본의 養老令 賦役令에도 土毛條²¹⁾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일본 고대 율령에 있어서의 土毛는 단지 해당지역에서 공급해야 할 물품으로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보내오는 생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土毛는 ‘調’와 수취품목과 수취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 上下關係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²²⁾

18) 『續日本紀』卷14, 聖武天皇 天平 15年(743) 3月條.

19) 신라사가 ‘土毛’라 칭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신라사에게 항의한 점과 관련하여 田村圓澄은 土毛가 동등한 지위, 동등한 신분의 사람이 상호 교환하는 증여품을 말하고 상하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調’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본조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며 또한 일본조정에서 ‘土毛’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신라사의 ‘調’를 매개로 한 양자의 기본적인 관계, 즉 신라는 부용국, 일본은 중주국이라는 설정을 자국에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달기도 한다(『平城京と新羅使』, 『日本學』 8·9합집, 동국대일본학연구소, 1989, 35쪽). 김창석은 신라사가 ‘土毛’라 개칭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항의한 사실이 그 전에는 신라가 일본측의 ‘貢調’인식을 외교적으로 양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절의 경우에는 일본조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를 ‘調’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8세기 신라·일본간 외교관계의 추이』, 『역사학보』 184, 2004, 12쪽). 이에 반해 김은숙은 신라사가 土毛라 칭한 것에 대해 일본측에서 신라의 선물을 朝貢國의 ‘調’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신라측이 ‘調’가 아님을 주장한 것이며 일본측의 대신라외교형식을 확인한 신라측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앞의 논문, 1991, 122쪽).

20) 『左傳』昭公 7年條“封略之內 何非君土 食土之毛 誰非君臣”; 『後漢書』馬融傳“其土毛則 摧牧 薦草 芳茹 甘茶(李賢注) 毛 草也”(『漢韓大辭典』 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21) “凡土毛臨時應用者 並准當國時價 價用郡稻”.

22) 연민수, 『統一期 新羅와 日本關係』, 『강좌 한국고대사』 4, 2003, 249쪽.
김창석, 앞의 논문, 2004, 29-30쪽.

이는 ‘土毛’라는 용어를 정치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경덕왕대 이전에는 신라의 對日贈與物이 일본지배층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진귀한 物品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²³⁾ 당시 신라사 김서정이 일본에 가져온 물품은 신라에서 생산되는 토산물 위주로 간소하게 채워졌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신라사가 증여물을 제공하면서 상세한 품목이나 수량 등을 일본조정에게 알리는 성의를 보여준 반면 경덕왕대에 들어와서는 신라사 김서정이 일방적으로 증여물을 土毛라 하여 物數만을 적어 보낸 사실에 대해 일본측은 常禮를 잃은 것이라고 하며 반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경덕왕은 일본사신을 不納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고 전례와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구성하여 증여하였다. 경덕왕은 왕권과 왕위계승에 대한 강한 집착의 소유자다. 경덕왕의 왕권과 왕위계승에 대한 강한 집념은 다양한 제도개혁과 그대로 연결된다. 경덕왕은 국내안정을 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왕 8년(749)에 과학분야의 天文博士 1員과 漏刻博士 6員을 증치하였다. 이는 각종 自然災害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긴요한 조치였다.²⁴⁾ 그는 孝를 권장하기 위해 孝를 실천한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 旌閭表彰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²⁵⁾

경덕왕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국내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를 배치한다거나, 기존 관부의 명칭을 보다 선명하고 세련된 용어로 바꾸는 한편, 기존의 관부에 인원을 좀더 보강하는 조치와 같은 일련의 제도정비와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²⁶⁾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경덕왕대에 진행된

23) 金善淑, 『新羅 聖德王·孝成王代의 對日外交』, 『大東文化研究』 5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2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8年條 “春二月 暴風拔木 三月 置天文博士一員 漏刻博士六員”.

25)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4年 春條; 『三國遺事』卷5, 孝善 向得舍知割股供親條.

26)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8年(749) 3月 및 9年(750) 2月, 11年(752) 秋 8月 및

문화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가령, 경덕왕은 왕 13년(754)에 父王이신 성덕왕에 대한 崇仰을 후세에 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聖德王碑를 건립한 바가 있다.²⁷⁾ 또한 비록 혜공 왕대에 주조되긴 했지만 경덕왕은 살아생전에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된 奉德寺²⁸⁾에 聖德大王神鍾을 주조하여 안치하고자 하였다.²⁹⁾ 이 같은 일련의 문화사업 추진 및 계획 등을 통해 경덕왕은 성덕왕의 追福을 기원하는 功德行爲를 통해서 선왕의 업적을 찬양하고 동시에 경덕왕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을 성덕왕의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왕권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정당화를 피하고자 했다.³⁰⁾

집권초기부터 추진된 다양한 제도개혁과 近侍機構의 정비 및 문화사업을 통해 강력한 왕권의 수립과 국내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경덕왕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前王代부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본에 보내지던 여러가지 값비싼 증여물에 대해서 경덕왕은 그 내용이나 수량을 조절하려 하였고 이를 일본과의 교역품으로 대체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경덕왕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내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자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 대해 우월 의식과 함께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일본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멸시적 내지 下位視하는 경향이 강했다.³¹⁾ 이에 따라 신라지배층내에서는 일본의 풍속이나 언어에 대해서조차 이는 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³²⁾ 경덕왕의 대일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성향이나 신라 내의 여러 情況 등으로 볼 때 신라측이 일본조정에게 일방적으로 土毛를 보냈을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신라측의 일방적인 대일외교정책변화에 대해 일본측이 반발하면서 신라사를 入京시키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맞대응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비록 신라사가 일방적으로 '土毛'라 칭하고 物數만을 적은 행위에 대해 失禮로 규정한 일본조정으로부터 신라사절단이 入京을 거부당하면서 곧 귀국할 수밖에 없었지만,³³⁾ 집권초기에 경덕왕이 신라사를 일본에 파견한 목적은 일본조정에게 향후 전개될 대일외교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이로써 두 나라의 외교관계는 거의 10년동안 중단되기에 이른다.

10月條: 同書 卷39, 雜誌 職官(中)條.

27)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3年(754) 5月條 “立聖德王碑 (下略)”.

28) 『三國遺事』卷2, 紀異 聖德王條에 의하면 봉덕사는 일찍이 성덕왕이 태종무열왕을 위해 건립한 사찰이라 전한다(“王爲太宗大王創奉德寺 設仁王道場 七日 (下略)”). 이에 대해 이호영은 봉덕사가 성덕왕 6년(707)에 태종무열왕을 위해 창건되었으나 효성왕 2년(738)에 완공되면서 성덕왕의 명복을 비는 원찰로 바뀌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앞의 논문, 1974, 2-9쪽).

29) 『三國遺事』卷3, 塔像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條.

30) 이호영은 경덕왕이 유교적 질서를 표방하고 여기서 부왕인 성덕왕을 추존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그 기반 위에서 전제왕권을 강화해 보려는 의도였던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1974, 11쪽). 박해현도 이 같은 견해를 따르고 있다(앞의 책, 2003, 137쪽). 광승훈은 경덕왕이 聖德王碑를 세운 것에 대해 성덕왕의 치적을 선양하고 또 계승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신료들로부터의 충성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23쪽).

31) 新羅 中代인 670년 이후 일본의 국명이 기존 倭國에서 日本國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聖德王代에 別置된 對日 관련 업무기구가 하대에 이르기까지도 '日本典'이 아닌 '倭典'으로 유지된 점에서 일본에 대한 신라인의 인식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전덕재, 『신라 중대 대일외교의 추이와 진골귀족의 동향』, 『한국사론』 37, 서울대 국사학과, 1997, 19쪽).

32) 『續日本紀』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4年條 “九月 新羅國遣級浪金貞卷朝貢 (中略) 本國王令齋御調貢進 又無知聖朝風俗言語者 (下略)”.

33) 濱田耕策은 742년과 743년의 사건에 대해 양국간 외교형식을 둘러싼 분쟁으로 보고 신라가 일본과의 외교의 장에서 조공형식을 고쳐 대등한 외교형식, 즉 充禮의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조공형식을 고집하는 일본과의 사이에 누차 마찰을 일으킨 것이라 하였다. 그 배경으로 그는 당·신라·발해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성덕왕대 후반부터 효성왕대에 걸쳐 집정한 金思恭 주도의 대일정책 등에서 찾고 있다(『中代・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329쪽).

3. 752년 金泰廉의 渡日背景과 그 의미

743년을 끝으로 중단된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그 뒤 수년이 지난 752년 춘 정월경(景德王 11, 孝謙天皇 天平勝寶 4)에 일본의 山口忌寸人麻呂가 신라에 入朝하고, 같은 해 윤 3월에 신라사 김태림이 渡日하면서 양국의 외교는 재개될 수 있었다.³⁴⁾ 그렇다면 일본조정은 왜 수년동안 중단된 신라로의 사신파견을 다시 단행했을까. 또한 경덕왕은 왜 신라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을까.

『續日本紀』에 의하면 752년에는 일본의 東大寺에서 盧舍那大佛像 개안식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의 동대사에서 盧舍那大佛像 개안식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新羅僧 審祥과 관련이 매우 깊었기 때문이다. 심상이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는 신라인으로서 대안사에 주지로 있었다. 그러다가 일본의 良辨僧正이 審祥大德에게 金鍾寺(東大寺 法華堂)에서 화엄경을 강의해 줄 것을 청하였고, 후에 심상은 일본 화엄종의 始祖로 추앙받을 만큼 학덕이 높았으며,³⁵⁾ 그의 강설을 들은 聖武天皇이 그에 감복하여 동대사와 盧舍那大佛像을 건립하였다.³⁶⁾

이 같은 일본의 정황들로 볼 때 일본조정은 신라와 밀접히 관련된 자국 내의 주요 불교행사와 관련하여 신라의 고위인사들을 초청하면서³⁷⁾ 자신들

34) 『續日本紀』卷18, 孝謙天皇 天平勝寶 4年(752) 春正月 및 閏 3月條.

35) 凝然 撰, 『華嚴法界義鏡』第10章 宗緒相承“(上略) 至大日本國者 昔人王第三十代欽明天皇御宇十三年壬申 從百濟國始傳佛法 至四十五代聖武天皇御宇天平八年丙子經百八十五年(中略) 于時良辨僧正 有感靈夢 遂請大安寺審祥大德於金鍾寺(今東大寺法華堂也) 講華嚴經 此時則天平十二年庚辰十月八日也 集京城名僧以爲聽衆 其初講之日紫雲上現互覆東山(中略) 最初開講審祥爲尊 發源與宗良辨爲本 審祥是新羅人 渡唐謁賢首 受學華嚴宗而來此國住大安寺 今且約就開講教授 審祥爲日本華嚴始祖(下略)”.

36) 이행구, 『東大寺의 創建과 新羅의 審祥』, 『일본학』 8·9합집, 동국대일본학연구소, 1989.

이 필요로 하는 다량의 물품교역을 요청키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음에 틀림 없다.³⁸⁾ 이는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절단의 규모가 700여 명으로 7척의 배를 동원해야만 했다는 점, 그리고 金泰廉³⁹⁾과 같은 신라 고위층 인사가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가는 배에 동승하여 難波館에 머문 뒤 일본천황과 면담하고 나서 그들의 불교행사에 참석했던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일본을 왕래하는 사신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조정에서 허가한 공적인 루트를 통해야만 가능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역은 모두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이따금씩 왕래하는 신라사신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사실은 752년의 교역상황을 짐작케 하는 일본 정창원 소장 貼布記 ‘買新羅物解’⁴⁰⁾ 내의 ‘念物’이란 문구 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⁴¹⁾

37) 이성시는 신라의 사절을 요청한 것이 대불개안회를 풍부한 국제색을 연출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았다(김창석 편역, 『752년 교역의 성격』,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139-140쪽). 최재석은 752년 정월 무렵 신라에 온 일본사가 동대사 개안식 때 신라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견된 사신이었지만 일본사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는 것은 왜곡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최재석, 『8세기 동대사 조영과 통일신라』, 『한국학연구』 9, 1997, 288쪽).

38) 永正美嘉는 752년 신라가 취급한 교역품 중 香藥에 주목하여 신라의 대일무역양상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752년 신라와 일본 간에 교역된 공무역에서는 128개의 물품이 교역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香藥은 불교의식의 필수품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 각 불교경전에 기록될 정도로 가장 중시된 주요 물품이었다고 한다(『新羅의 對日香藥貿易』,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39) 일본사서에서는 金泰廉을 왕자로 소개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김태림은 신라왕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로는 성덕왕의 조카인 金志廉을 들 수 있다. 당시 신라에서는 돌림자의 이름이 꽤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태림과 김지림이 그 이름이나 생존시기상 형제관계이면서 경덕왕과는 사촌지간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가 왕족이라는 점(김은숙, 앞의 논문, 1991, 123쪽)에서 신라사신이 일부러 일본 관리에게 그를 왕자로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40) ‘買新羅物解’는 752년 6월에 김태림 등이 來日했을 때 일본의 귀족층이 구입할 예정이던 신라물의 종류와 가치를 기입하여 大藏省이나 內藏寮(외국사신이 보내 온 물품 및 일본천황이 쓰는 물품의 관리·출납을 관장하는 官司)에 보고한 문서이다(東野治之, 『鳥毛立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진 전쟁이 종식된 이후 신라와의 和親을 도모하며 신라문화 내지 대륙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그 주된 수단인 하나가 사신의 왕래와 신라로부터의 증여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8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일본은 왕권강화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다. 일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소위 天皇을 중심으로 한 제반제도를 마련해 나갔고 天皇과 臣下 및 百姓과의 상하관계를 보다 形式化·專制化시킬 수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사신의 入京과 더불어 자국에 증여되는 물품에 대해 천황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써 중시하였다.⁴²⁾

그러므로 일본의 입장에서 그 같은 대규모의 국가적 행사에 외국사신의 참석은 필요하였다. 일본이 752년에 신라로 사신을 파견했던 목적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⁴³⁾ 그리하여 일본사 山口忌寸人麻呂가 신라에 파

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高書房, 1978).

41) 李蘭暎은 '念物'을 교역문서에 흔히 보이는 주문품으로 해석한다('나라 정창원에 보이는 신라문물', 『중계장충식박사회갑기념논총』, 1992, 644쪽). 이성시는 원하는 물건(희망품)이라 하여 신라문물로 보았는데 이 '신라문물'은 일본 귀족이 소유하고픈 물건이었다고 한다(앞의 책, 1999, 56쪽). 윤선태는 '念物'을 간절히 바라는 물품으로 해석한다('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쓰게(貫新羅物解)', 『역사와 현실』 24, 1997, 64쪽).

42) 이성시 저·김창석 역, 앞의 책, 1999, 137-138쪽.

박석순, 『外來의 物과 古代日本の 王權』, 앞의 책, 2002.

43) 기존에는 752년 山口忌寸人麻呂의 新羅入朝와 김태렴 등의 신라사 파견을 직접 연결시켜 왔으나 이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石井正敏에 의하면 김태렴 등의 신라사는 일본측의 요청이 아닌 자주적으로 파견되었다는 반론이다('天平勝寶四年의 新羅王子金泰廉來日の事情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42-56쪽). 한편 濱田耕策은 외교관계의 악화와 교역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신라의 대일의교책이 752년의 '假王子' 김태렴의 파견이라 하면서 신라는 이 '假王子'의 파견에 의해 외교형식을 고집하는 일본측을 만족시키고 20여 년간 정체된 대일교역을 성대하게 진행시키려 했다고 보았다(앞의 책, 2002, 350쪽). 하지만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당시 경덕왕의 정치 외교적 성향이나 신라의 관련사료들을 도외시 한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만일 경덕왕이 대일외교의 악화와 교역의 정체를 타개하고자 했다면 그 이후의 양국관계도 신라의 양보와 타협으로 일관돼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견된 뒤 경덕왕은 김태렴 이하 수백명의 신라사절단을 일본에 보냈고 일본 조정에서는 이들을 맞이하여 朝堂에서 饗宴을 베풀었다.

그런데 만일 신라에 파견된 일본의 山口忌寸人麻呂가 경덕왕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무례하게 처신했다고 한다면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성향상 그들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덕왕은 바로 다음해인 753년 신라에 파견된 日本大使 小野朝臣田守가 신라의 외교의례에 벗어난 행동을 하자 가차없이 접견을 불허할 정도로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752년경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신라에 入朝한 일본국사가 당시 신라 국내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파견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비록 사료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일본사는 경덕왕을 謁見하였을 때 신라의 외교의례에 따른 태도 내지 저자세를 취하며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노력했을 것이다.

경덕왕이 신라사절을 일본에 파견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먼저, 신라는 당시 한반도 북부에서 국경을 맞댄 발해와의 대립상황에서 일본을 고려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국 보전책의 일환으로써 일본이 원하는 번국의 예를 갖춰 입조했고 아울러 대량의 문물을 가져갔다고 하여 정치적 목적을 강조한 견해가 있다.⁴⁵⁾ 이밖에도 東大寺의 대불개안을 축하하는 사절이라고 보는 견해,⁴⁶⁾

즉, 경덕왕은 대당외교를 중시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경덕왕이 753년에 신라에 온 일본사신을 무례하다는 이유로 不納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44) 『續日本紀』卷19, 孝謙天皇 天平勝寶 5年(753)條 “二月 以從五位下小野朝臣田守爲遣新羅大使”.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2年(753)條 “秋八月 日本國使至慢而無禮 王不見之及廻(下略)”.

45) 今西龍, 『新羅中代下代の外國關係』,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70.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東京, 2001.

무역의 목적이 강하였음을 지적하는 견해,⁴⁷⁾ 일본에 영합하는 ‘貢調使’파견이란 정치적 목적과 함께 교역활동의 목적도 수반되었다고 보는 견해,⁴⁸⁾ 大安寺·東大寺 參拜와 交易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편법이라는 견해⁴⁹⁾들이 있다.

그런데 경덕왕은 당시 신라와 일본 두 나라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라의 고위층 인물과 함께 대규모의 신라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는 김태렴의 신라사 일행이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 문화적인 목적하에 파견된 사절임을 말해준다.

즉, 당시 신라에 入朝한 일본사신이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한 경덕왕에게 자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라승 심상의 역할과 그의 위상 및 일본의 불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초청의사를 밝히고 이에 필요한 물품의 교역⁵⁰⁾

등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덕왕 역시 매우 흥미를 갖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조정의 불교행사에 직접 고위층을 비롯한 다수의 신라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신라에게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획득과 함께 경덕왕 자신의 권위는 물론이고⁵¹⁾ 높은 수준의 신라문화를 일본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판단한 경덕왕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⁵²⁾ 따라서 佛敎를 기반으로 하는 동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신라와 일본이 비록 외교적으로 갈등관계를 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개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752년에 신라사 김태렴 등이 渡日하여 일본천황을 만나게 된다. 이때 이들을 면담한 일본천황은 전례없이 신라국왕의 親來는 물론이고 만일 여의치 않아 다른 인물을 入朝시킬 경우 ‘表文’을 지참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서 ‘表文’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황상 신라국왕이 일본천황에게 직접 보내는 글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

는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永正美嘉, 앞의 논문, 2003, 35쪽). 또한 동대사의 천장장식에 사용된 안료 17종 가운데에 金靑·朱砂·銅黃 등 8종은 752년 일본의 동대사 비로자나불 개안식에 초대되어 참가한 신라사절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최재석, 앞의 논문, 1995, 303쪽).

51) 이성시는 신라왕권측에서 사절파견과 교역으로 얻어진 재물을 귀족들에게 재분배하였고 외부의 재물을 관리 독점하여 이를 재분배함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1999, 138쪽).

52) 신라의 뛰어난 기술은 조선술과 행해술에서 뿐만 아니라 비록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839년경 일본조정에서 태재부에게 新羅船을 만들어 능히 풍파를 견딜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사실(『續日本後紀』卷8, 仁明天皇 承和 6年 秋 7月條)과 840년경 대마도의 관리가 신라선의 우수성을 말하고 신라선 6척 중에서 1척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일(『續日本後紀』卷9, 仁明天皇 承和 7年 9月條), 그리고 경덕왕이 762년 전후에 당의 代宗에게 ‘萬佛山香’을 보낸 적이 있는데 당의 代宗은 신라의 ‘萬佛山香’을 보자 그 기술을 찬탄하며 ‘天造’라고 칭찬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경덕왕의 신라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인다(『三國遺事』卷3, 塔像 四佛山 掘佛山萬佛山條; 『香乘』卷12, 香事別錄下 萬佛山香條 “新羅國獻萬佛山香 雕沈檀木珠玉以爲之”).

김창석 편역, 『752년 교역의 성격』, 앞의 책, 1999.

46) 濱田耕策, 앞의 책, 2002, 336쪽.

47)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からみた新羅文物』,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47, 1980.

김은숙, 앞의 논문, 1991, 124쪽.

윤선태, 앞의 논문, 1997.

구난희, 앞의 논문, 1999, 23쪽.

石井正敏, 앞의 책, 吉川弘文館, 2001.

48) 鈴木靖氏, 『正倉院佐波理加盤付屬文書の基礎的研究』, 『朝鮮學報』 85, 1977.

濱田耕策, 『中代・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 앞의 책, 2001.

이들과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 즉, 최재석은 일본의 정치를 지도하는 관인집단과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는 무역인단으로 신라의 사절단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통일신라 일본의 관계와 일본이 신라로부터 구입한 물품』, 『민족문화』 18, 1995, 138쪽).

49) 田村圓澄, 앞의 논문, 동국대일본학연구소, 1989.

이병로, 『8세기 일본의 외교와 교역』, 『일본역사연구』 4, 1996.

池田濶, 『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

연민수, 앞의 책, 2003, 251-252쪽.

김창석, 앞의 논문, 2004.

50) 신라와 일본간에 행해진 무역의 주된 대상은 5위 이상의 귀족과 사원이었다. 특히 일본의 東大寺司主典에서는 신라사절단으로부터 주로 香藥을 구입하였는데 동대사에서 행하

된다. 그렇다면 752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신라는 국왕의 親書없이 주로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신의 口奏를 통해서 일본과 意思를 전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덕왕의 일본을 무시하는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측의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52년 김태렴의 渡日 이후 일본은 이때 비로소 국가간에 행해지는 공식적인 외교문서를 요구한 것이다.⁵³⁾ 이는 김태렴 이하 신라사절단이 渡日하기에 앞서 신라에 파견된 일본사가 신라조정에게 일본의 蕃禮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어떠한 요구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덕왕은 이 같은 일본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는 경덕왕이 753년에 來朝한 日本國使 小野朝臣田守를 무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이나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외교교섭이 또다시 중단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4. 日本의 新羅侵攻計劃과 新羅使의 渡日

경덕왕대 후반의 신라는 경덕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권에 도전하는 불안정한 정세마저 계속되었다.⁵⁴⁾ 게다가 경덕왕 4년(745) 이후 신라에서는 가뭄과 기근 및 역병이 횡행하였다.⁵⁵⁾ 또한 경덕왕대에는 왕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사찰과 불상, 기타 여러 건축물들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였고 국가 세입의 규모 역시

53) 이병로는 일본측이 요구하는 表文이란 '新羅國王이 天皇의 朝貢國'이라는 표현의 國書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8세기의 羅日關係史-中華思想과 交易를 중심으로-', 『일본학 연보』 4, 1992, 14쪽).

54) 『三國遺事』卷5, 感通 月明師兜率歌條.

55)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4年 5月·6年 3月 및 冬條: 同王 景德王 13年 春·14年 8月條.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인해 관리들의 月俸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불만은 당시의 집권세력에게 상당한 위협 요소로 받아들여졌다.⁵⁶⁾ 더구나 잦은 재해는 농민층의 몰락과 도산 및 국가재정의 궁핍을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⁵⁷⁾

경덕왕 19년에 侍中인 廉相이 물러나고 金邕이 侍中에 임명되었다.⁵⁸⁾ 이때 廉相이 물러난 것은 歷代 侍中들과 마찬가지로 그해 일어난 천재지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다가 혜공왕 11년(775)에 그는 金正門과 함께 謀叛을 일으키고 죽음을 당하고 만다.⁵⁹⁾

이런 사실로 볼 때 그는 혜공왕의 즉위를 반대하던 세력 가운데 한명으로서 일찍이 경덕왕과 그의 측근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三國遺事』에 경덕왕 19년 4월경 두 해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사는 경덕왕대 말년에 어린 태자를 둘러싼 갈등과 그 이후에 전개되는 廉相과 같은 反惠恭王 勢力들의 王權에 대한 도전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⁰⁾

이러한 신라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경덕왕은 760년에 752년 이후 수년

56) 전덕재, 앞의 논문, 1992, 45쪽.

57) 『續日本紀』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758) 8月條에 의하면 新羅僧 32인과 尼 2인, 그리고 남녀 40인이란 많은 수의 신라인이 일본에 귀화하자 일본조정에서는 이들을 武藏國 閑地로 이주시켰는데 이곳에 처음으로 新羅郡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당시 신라정세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여러 공사 등으로 인한 노력 및 많은 佛事의 남발에 따른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해 승려들조차 신라를 떠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승려들 가운데에는 포교와 같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라를 떠났을 수도 있다. 일본의 武藏에 있는 신라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中山清隆, 「古代武藏の新羅郡について」, 『考古學ジャーナル』 349, 1992.

58)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9年條 “夏四月 侍中廉相退 伊滄金邕爲侍中”.

59)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惠恭王 11年條 “秋八月 伊滄廉相與侍中正門謀叛 伏誅”.

60) 경덕왕대의 왕권에 위협적인 세력은 김용 등의 외척세력인데 당시의 불안정한 정세는 이들이 정국의 전면에 나서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박해현, 앞의 책, 2003, 144쪽).

동안 중단된 외교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때 신라사절단을 맞이한 陸奧按察使 從四位下 藤原惠美朝臣朝獬이 級浪 金貞卷에게 일본에 온 이유를 묻자 金貞卷이 本國王께서 보낸 증여물을 가져왔으며 신라에는 일본의 풍속과 언어를 아는 자가 없으므로 學語 2인과 동행하였다고 대답한다.⁶¹⁾

신라사의 응답내용에 의하는 한 경덕왕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할 목적으로 김정권 등을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라사의 형식적인 대답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일 경덕왕이 일본과의 외교관계수립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을 바꿔 그들이 원하는 국왕의 表文과 物品의 증여는 물론이고 신라사는 적어도 고위직의 인물이었거나 일본측에 영합하는 言行 등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덕왕은 대일외교정책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신라사 김정권이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고위직의 인물도 아니었으며 일본측에 영합하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연 경덕왕이 일본과의 외교관계수립을 위해 신라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신라사가 순수하게 외교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기 보다는 일본의 동태를 엿보기 위한 목적에서 사신을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⁶²⁾ 그것은 경덕왕이 7세기대 이래 일본의 九州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신라 본국과 왕래하던 신라계도래인들⁶³⁾로부터 75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일본측의 침공계획을 사전에 알게 되었고, 일본의 분위기를 탐색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⁶⁴⁾

61) 『續日本紀』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4年(760) 秋 9月條.

62) 김은숙, 앞의 논문, 1991, 126쪽.

63) 최재석, 「7-9세기 일본열도내의 신라방에 대하여」, 『한국학보』 91·92합집, 1998.

64) 일본에서 신라에 대한 主戰論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이 신라에 대해 전통적으로 조공국시하려는데 반해 신라에서는 일본과 대등관계를 세우려함으로써 양국의 평화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발해와 교통을 하면서 신라를 통한 당과의 교류가 해소된 점, 그리고 일본에 귀화한 옛 백제 고구려 유민들이 일본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신라에 대한 원한이 일어나면서 주전론이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한다(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 『史學雜誌』 35-11, 1924, 20-28쪽).

일본측 역시 신라침공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신라측의 동태에 의심스러워하고 경계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조정에서는 이러한 신라사의 방문에 대해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즉, 藤原惠美朝臣朝獬이 고압적인 태도로 753년 당시의 일을 환기시키면서 이는 신라의 闕禮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金貞卷이 당시 자신은 지방관으로 나가 있었으며 또한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은 일본측에서 몇 가지 요구조건과 함께 그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되돌려보낸(却廻)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는 일본측이 외교명분상 753년에 일어난 경덕왕의 日本使 不納事件을 내세움으로써 또다시 갈등을 노정하게 된다.⁶⁵⁾ 이러한 두 나라의 외교적 갈등은 763년(경덕왕 22)에도 지속되었다. 경덕왕은 新羅使 金體信 등 211인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때 신라사를 맞이한 大原真人今城과 池原公禾守 등이 김정권에게 약속한 일을 물었다. 그러자 김체신이 국왕의 敎를 받들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今城이 乾政官의 처분에 의거하여 이는 사신된 자로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라고 하며 김체신에게 이후부터 파견되는 신라사에 대해 왕자나 執政大夫가 아니면 來朝하지 말 것을 전하였다.⁶⁶⁾

신라사 김체신은 경덕왕대로부터 선덕왕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하던 인물로 그는 혜공왕 7년(771) 제작의 『성덕대왕신종명』에 김웅 및 김양상과 함께 副使로서 이름을 남기는 등 경덕왕의 외교노선을 추종한 자였다. 그런 그가 일본에 파견된 것이다. 또한 『續日本紀』에는 신라사 김체신 일행의 귀국여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다. 다만 이들 일행의 숫자가 200여 명으로 외교교섭만을 위해 동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수라는 점, 그리고 760년대에 들어와서 交易의 場이 대재부로 바뀐 점⁶⁷⁾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65)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景德王 12年(753) 秋 8月條.

66)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7年(763) 2月條.

비록 일본측이 요구하는 외교의례를 따라 入京하지 않더라도 교역이라는 명분하에 대재부에 머물며 일본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발해와 일본은 일본이 신라에 대한 침공계획을 추진하던 7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긴밀해지기 시작한다. 물론 736년에 발해의 己珣蒙이 일본의 遣唐使인 平朝郡臣廣成을 帶同하고 일본에 온 사실이 있다.⁶⁸⁾ 이 시기는 일본이 738년에 渡日한 신라사 김상순 일행을 入京시키지 않고 대재부에서 향연만을 베풀고 되돌려 보내는 등 신라와 일본 두 나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때 일본에서는 당나라와의 교류에 필요한 신라경유 의 기존 遣唐路線으로부터 새로운 遣唐路線으로서의 발해경유노선에 주목하였을 것이고, 발해로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발해조정에서도 일본측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발해조정으로서도 일본과의 사신왕래를 통한 인적·물적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발해에서는 무왕의 뒤를 이어 문왕이 등극한 사실을 일본에 알리는 사절단과 함께 자국에 체재하고 있던 일본의 견당사를 동행시킬 수 있었다. 이후 발해와 일본 두 나라는 상대국에 빈번히 사신을 보내게 된다. 이로써 일본은 발해를 통해 唐國의 소식은 물론이고 당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758년에 일본의 小野朝臣田守가 遣渤海使로서 임명된 바 있다. 그의 임무에 대해서는 757년에 발생한 橘奈良麻呂의 난으로 인해 사료가 逸失되어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⁶⁹⁾ 그는 聖武天皇의 喪을 알리고 당의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 파견되었음이 분명하다.⁷⁰⁾

67) 이성시 저·김창석 역, 앞의 책, 1999, 189-190쪽.

68) 『續日本紀』卷13, 聖武天皇 天平 11年 7月 및 11月條.

69) 上田雄, 『渤海使の研究』, 明石書店, 2002, 270-271쪽.

이는 小野朝臣田守 등의 渤海入國을 계기로 그의 귀국편에 발해조정에서 揚承慶을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양승경이 日本使節의 無事歸還과 함께 弔問使로서 성무천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일본조정에 보내는 발해왕의 信物 및 傳言 등을 전달한 점이나 小野朝臣田守는 조정에 唐國의 소식을 보고한 사실 등⁷¹⁾에서 알 수 있다.⁷²⁾ 이러한 喪告使의 파견은 일찍이 일본이 신라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⁷³⁾

또한 759년에 渡日한 발해사 高南申 등의 일행은 일본의 遣唐使 藤原河清을 맞이하러 발해에 온 일본사신 일행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면서 발해왕이 보내는 信物과 傳言 등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이었다.⁷⁴⁾ 762년에 來日한 王新福 등의 일행 역시 발해에 파견된 일본사절 伊吉連益麻呂 등의 일행을 이끌고 공식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대일사절이었다.⁷⁵⁾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일본조정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일본의 當代 文士들과 送別·和答의 詩를 주고받으며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기도 했다.⁷⁶⁾

70) 上田雄은 小野朝臣田守의 파견이 표면적으로 성무천황의 喪을 알리는 일이었지만 그 외에도 신라침략계획에 발해를 끌어들이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2002, 271쪽).

71) 『續日本紀』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758) 9月·12月條; 同書 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春 正月 및 2月條.

72) 발해사 양승경 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발해와 일본 사이에 신라정도의 '군사동맹'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 견해가 있다(이성시 저·김창석 역, 앞의 책, 1999, 149쪽; 酒寄雅志,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 앞의 책, 2001, 66-67쪽). 그러나 신라와 발해의 관계로 보거나 발해의 외교행보로 볼 때 과연 이때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73) 酒寄雅志, 앞의 논문, 2001, 213쪽.
金善淑, 『羅唐戰爭 前後 新羅·日本間 外交關係의 推移와 그 背景』, 『日本學』 23, 동국대일본학연구소, 2004.

74)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冬 10月 및 4年 春 正月條.

75)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6年(762) 冬 10月 및 7年 2月條.

76)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春 正月 및 2月, 冬 10月, 4年 春 正月條; 同書 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7年 春 正月條.

이러한 발해와 일본 사이에 조성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757년부터 신라침략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였고,⁷⁷⁾ 759년 이후에는 신라에 대한 침공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⁷⁸⁾ 가령 759년(경덕왕 18)에는 신라정벌이란 명분하에 北陸道와 山陰道에 造船을 지시하는가 하면,⁷⁹⁾ 新羅의 공격을 예상하고 일본의 大宰府가 신라의 동해변과 마주한 일본의 博多 大津이나 壹岐 및 對馬 등의 요충지에 兵船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⁸⁰⁾ 761년에는 천황이 신라정벌을 위해 美濃國과 武藏國의 소년 각각 20여명을 선발하여 신라어를 가르치도록 명하였으며,⁸¹⁾ 763년에는 이를 위한 실제적인 군사훈련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⁸²⁾

77) 『經國集』卷20, 策下 對策 “問 三韓朝宗 爲日久矣 占風輸貢 歲時靡絕 頃藜爾新羅 漸闕蕃禮 蔑先祖之要誓 從後主之迷圖思欲 多發樓船 遠揚威武 斬奔鯨於鯤壑 戮封豕於鷄林 但良將伐謀 神兵不戰 欲到斯道 何施而獲 (中略) 天平寶字元年十一月十日”.

78) 일본내에서 신라정벌을 주도한 인물은 右大臣으로서 후에 太政大臣이 되는 藤原惠美朝臣 押勝, 즉 藤原仲麻呂다. 그는 757년에 황태자 道祖王을 폐하고 大炊王을 천황으로 등극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신라침략을 내세운 것은 755년부터 계속 일어난 安祿山の 亂과 史思明의 亂 등으로 인해 신라의 후원세력인 당이 한반도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판단,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관심을 국외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和田軍一, 앞의 논문, 1924, 35-37쪽). 한편 당시 신라와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했던 일본으로서는 신라를 공격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중화사상의 실현이라는 명분적 입장에서 신라정토의 길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신라정토계획은 실제의 상황을 염두해 둔 계획이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하여 대신라경제 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의 권력집중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연민수, 앞의 책, 2003, 257-258쪽).

79)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8月條 “遣太宰率三品船親王於香稚廟 奏應伐新羅之狀 九月 (中略) 造船五百艘 北陸道諸國八十九艘 山陰道諸國之內成 功爲征新羅也”.

80)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 3月條.

81) 『續日本紀』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5年(761)條 “春正月 (上略) 令美濃武藏二國少年 每國二十人 習新羅語爲征新羅也”.

82)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7年(763) 11月條 “遣參議從三位武部卿藤原朝臣勢麻呂 散位外從五位下土師宿禰犬養 奉幣於香稚廟 以爲征新羅調習軍旅也”.

764년(경덕왕 23)에 大奈麻 金才伯 등 91인의 신라사절단이 일본의 大宰 博多津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唐國 使臣 韓朝彩의 요청에 따라 執事部の 牒을 휴대하고 日本僧 戒融이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임시사절단이었다.⁸³⁾ 한조채는 발해에 파견된 唐의 特使로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전 신라에 잠시 들렀던 인물이다.

그가 발해를 거쳐 신라로 들어간 경로에 대해서는 발해왕성으로부터 鴨綠江口로 내려가서 신라 서북지역의 長口鎮을 거쳐 唐恩浦에 안착하여 상륙한 뒤 신라왕성까지 70리에 이르는 陸路로 使行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⁸⁴⁾ 그러나 이 경로는 신라 경주까지 들어가기에 너무나 멀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지 않았다.⁸⁵⁾ 또 하나는 발해의 국내성으로부터 평안도지역을 경유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인데,⁸⁶⁾ 이 길 역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의 교통로로서 자주 이용되지 않았다.⁸⁷⁾

당사 한조채의 뻘뻘한 일정을 고려할 때 그는 발해의 王城에서 출발하여 발해 五道の 하나로서 新羅道の 기점인 柵城府로부터 南海府(북청)⁸⁸⁾를 거쳐 발해의 南界⁸⁹⁾이면서 신라의 북경지역인 井泉郡(덕원)⁹⁰⁾ 사이에 설치된 39개의 역⁹¹⁾을 통해 최단거리로 신라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⁹²⁾

83)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 秋 7月條.

84) 『新唐書』卷43, 地理志 河北道條.

85) 방학봉, 『발해경제 및 주요 교통로 연구』, 신성출판사, 2005, 339-340쪽.

86) 『三國史記』卷37, 雜志 地理條 “(上略) 國內城從平壤至此十七驛 則此城亦在北朝 (下略)”.

87) 방학봉, 앞의 책, 2002, 336-337쪽.

88) 河上洋, 『渤海の交通路と五京』, 『史林』 72-6, 1989.

발해의 南京南海府에 대해서는 濱田耕策이 함경남도 함흥에 비정하고 있고(『新羅國史의 研究』, 吉川弘文館, 2002, p. 154). 이외에 신창설·덕원설·종성설 등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북청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최근에 이곳에서는 발해 남해부의 유지로 추정되는 청해토성 혹은 토성리 토성이 발견된 바 있으며 발해의 성 중 가장 크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발해의 중요 건축물로 인정되고 있다(방학봉, 앞의 책, 2005).

89) 新妻利久, 『渤海國の南界について』, 『國史學』 67, 1956.

9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德源都護府條.

91) 『三國史記』卷37, 雜志 地理條 “渤海國南海鴨綠夫餘柵城四府 并高句麗舊地自新羅泉井郡

신라에서는 경덕왕대에 발해와 국경을 접한 井泉郡에 炭項關門을 쌓은 적이 있었다.⁹³⁾ 이는 국경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경이란 국가의 명령체계가 미치는 지역이다. 국경의 확정은 곧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관문은 양국간의 교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천군 탄항관문은 발해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탄항관문은 바로 양국상설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⁹⁴⁾ 이와 관련하여 신라사가 발해에 파견된 사실은 『三國史記』에 남아 있는 짝막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시대가 조금 내려가는 元聖王 6년(790)과 헌덕왕 4년(812)에 각각 一吉滄 伯魚와 緞滄 崇正을 北國에 보낸 일이 있었다.⁹⁵⁾ 여기에서 ‘北國’이란 물론 신라의 북쪽나라에 해당하는 발해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처음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발해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볼 수 없다.

신라는 735년(성덕왕 34)에 唐國으로부터 涇江 이남의 땅을 인정받은 이후로 747년(경덕왕 6)에 신라사신이 발해사신과 함께 당의 하정례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⁹⁶⁾ 748년(경덕왕 7)에는 발해와 국경을 맞댄 新羅北邊에

14개의 郡縣을 설치한 일도 있었다.⁹⁷⁾ 따라서 이무렵 신라와 발해 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나마 직접적인 交涉이 있었을 것이다.⁹⁸⁾

게다가 737년에는 발해의 武王인 大武藝가 사망한 이후 발해와 당 사이에도 관계가 회복되었다. 즉, 발해에서 武王의 사후 大欽茂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당에서 책봉사를 발해에 보낸 것은 물론, 762년(경덕왕 21)에는 당이 발해를 渤海國으로, 文王인 大欽茂를 渤海國王으로 승격시켰다.⁹⁹⁾ 이러한 신라와 발해, 당의 관계 속에서 唐使 韓朝彩는 渤海를 거쳐 신라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764년 7월에 金才伯이 渡日했을 때 일본조정에서는 당시 신라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엄히 경비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일본조정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金才伯은 ‘唐에서 소요가 발생하고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다.¹⁰⁰⁾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신라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자국에서 진행된 신라침략준비가 760년과 763년 두 차례에 걸쳐 渡日한 신라사신들이나 또는 일본내에 거주하면서 신라 본국과 연

至柵城府 凡三十九驛”.

92) 濱田耕策은 唐使 韓朝彩가 동해안의 신라도를 이용하여 신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존 서해안의 노선을 통해 신라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의 한조채는 발해와 신라가 당에 사신을 빈번히 보내던 기존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데, 驛·館·津 등 육로와 해로의 교통시설이 동해안의 신라도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과 한조채가 당의 勅使였던 사행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당사 한조채는 서해노선을 따라 신라에 입국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唐의 勅使韓朝彩의 渤海國行』,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 418쪽). 반면 赤羽目 匡有는 일본승 계용의 출항지를 발해의 남해부로 보고 당사 한조채도 이 길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신라의 경주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8世紀中葉における新羅と渤海との通交關係』, 『古代文化』 56-5, 2004, 36쪽). 방학봉 역시 발해의 신라도와 신라의 동해안 노선을 통해 경주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2005, 338쪽).

93) 『三國史記』卷35, 雜志 地理 井泉郡條.

94) 조이옥,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2001, 147-148쪽.

95)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元聖王 6年 3月 및 憲德王 4年 秋 9月條.

96) 『冊府元龜』卷991, 外臣部 朝貢 4 “天寶六載正月 新羅渤海龜茲于闐焉耆牂牁羅維平蠻黃頤

室韋黑水靺鞨並遣使賀正各獻方物”.

97)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 34年 2月條: 同書 卷9, 景德王 7年 秋 8月條.

98) 조이옥은 경덕왕 16년(757)을 전후한 시점에 泉井郡이 회복됨에 따라 신라가 발해와의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앞의 책, 2001, 148쪽).

99) 『新唐書』卷219, 渤海傳: 『舊唐書』卷199, 渤海傳.

100)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條 “秋七月(上略) 勅曰 比來彼國投化百姓言 本國發兵警備 是疑日本國之來問罪也 其事虛實如何 對曰 唐國擾亂 海賊寔繁 是以徵發甲兵 防守緣邊 乃是國家之設 事既不虛(下略)”. 한편 당나라에서는 755년(唐 玄宗 天寶 14)부터 安祿山(安史)의 亂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 수도가 토번의 침략을 당하는 등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舊唐書』卷9, 玄宗本紀 下: 同書 卷10, 肅宗本紀: 同書 卷11, 代宗本紀). 758년 당시 일본에서도 난을 일으킨 안록산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續日本紀』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 12月條 “遣渤海使小野朝臣田守等 奏唐國消息曰 天寶十四載 歲次乙未十一月九日 御史大夫兼范陽節度使安祿山反 舉兵作亂(中略) 於是 勅太宰府曰 安祿山者 是狂胡狡豎也 違天起逆 事必不利 疑是不能計西 還更掠於海東(中略) 委以重任 宜知此狀 預設奇謀 縱使不來 儲備無悔 其所謀上策(下略)”).

락하던 사람들¹⁰¹⁾에 의해 신라조정에게 알려져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⁰²⁾

이처럼 신라에서는 唐의 內亂과 해적들의 頻發을 이유로 군사력 강화와 주변 경계가 심화되고 있었다. 당에서는 755년에 平盧·范陽·河東의 절도사를 겸임한 安祿山이 宰相으로서 長安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楊國忠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거병한 뒤 763년에 史朝義가 李懷仙에게 살해됨으로써 9년간에 걸친 당의 내란이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唐使 한조체가 발해를 거쳐 신라에 들어왔다는 사실 및 그의 부탁에 따른 신라사 김재백의 渡日 등이 신라를 침략하려는 일본측의 계획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일본내에서 신라침략계획을 주도한 인물은 太政大臣(太師) 藤原惠美朝臣押勝, 즉 藤原仲麻呂 또는 惠美仲麻呂였다. 그는 764년(天平寶字 8)에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였다.¹⁰³⁾ 따라서 그가 주도한 신라침략계획은 그의 반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都督으로서 자신의 휘하에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⁴⁾ 그러나 일본의 신라침략계획은 난이 진압된 후 그의 몰락과 함께 실행되지 못했다.¹⁰⁵⁾

101) 최재석, 「7-9세기 일본열도내의 신라방에 대하여」, 『한국학보』 91·92, 1998, 117쪽.

102) 이러한 신라사신의 대답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일본측과의 외교마찰을 피하려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고 일본의 정토계획을 알고 있었던 신라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전덕재, 앞의 논문, 1997, 29-30쪽).

103) 『續日本紀』 卷25,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 9月條.

104) 『續日本紀』 卷25, 淳仁天皇 天平寶字 8年(764) 9月條 “以太師正一位藤原惠美朝臣押勝爲都督 使四畿內 三關近江丹波播磨等國習兵事”.

105) 和田軍一, 앞의 논문, 1924, 41-42쪽.

酒寄雅志는 일본왕권의 분열과 이로 인한 仲麻呂正權 기본구조의 붕괴 및 발해와 당 간의 관계회복에 따른 발해측의 방침변경 등을 들고 있다(앞의 논문, 2001, 224-225쪽). 김은숙은 762년·763년의 기근·역병·물가등귀 등의 사회불안과 仲麻呂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의 악화와 같은 일본국내 사정, 762년 발해측의 대당사정변화에 의한 방침변경과 같은 국외의 사정 등을 들고 있다(앞의 논문, 1991, 126쪽).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藤原仲麻呂가 신라에 대한 침략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일본지배층의 신라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 반신라감정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唐朝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신라의 국제적 위상이 일본보다 높았기 때문에¹⁰⁶⁾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열망에서 비롯된다.¹⁰⁷⁾

5. 맺 음 말

이상으로 신라 경덕왕대의 대일외교를 국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고찰해보았다. 경덕왕대에는 모두 다섯 차례 정도 신라사절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신라사절의 일본체류기간은 752년의 약 4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2개월 미만이거나 入京조차 하지 못하고 放還 내지 放却조치를 당하였다. 일본사신이 신라에 파견된 횟수도 모두 세 차례 정도였고 신라사절단을 초청키 위해 파견된 752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사신은 경덕왕을 접견조차

106) 이는 당의 외교문서형식에서도 신라가 발해와 일본 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조된다. 山内晋次,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107)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續日本紀』에 의하면, 754년(景德王 13)에 일본의 遣唐副使 大伴宿禰古麻呂가 귀환한 뒤 자국 조정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753년 정월에 唐의 관리들과 외교사신들이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蓬萊宮 含元殿에 모였는데 일본은 西畔 제2인 吐蕃 아래에, 신라사는 東畔 제1위인 大食國 위에 있어서 大伴宿禰古麻呂가 옛부터 지금까지 신라는 일본국에 조공한 지 오래되었으나 지금 오히려 일본이 신라 아래에 있으니 이치에 합당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장군 오회실이 곧 신라사를 서반 제2위인 토번 아래에, 일본사를 동반 제1위인 대식국 위에 배열시켰다는 것이다(『續日本紀』 卷18, 孝謙天皇 天平勝寶 6年(754)條). 大伴宿禰古麻呂의 보고내용이 꾸며낸 것이든 아니든 그가 그러한 보고를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일본지배층내에서 강하게 일어난 신라에 대한 반발심과 열등감, 경쟁심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일본측의 獨斷的思考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러한 思考는 일본지배층에게 신라침략이란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 이는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그다지 긴밀하다거나 활발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며 이러한 상황은 두 나라의 외교관계상에서 언제든 지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743년에 신라사 김초정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신라사가 대일증여물을 일방적으로 '土毛'라 칭하면서 物數만을 적어 보내자 일본측이 상례를 크게 잃은 것이라 하여 신라사의 入京을 거부하였다. 일본에 대한 신라측의 외교행위는 그 이전에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는 경덕왕이 김초정을 통해 이전 王代와 다른 대일외교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인데 경덕왕대에 진행된 강력한 왕권의 수립 및 안정을 위한 개혁의 일환이었으며 경덕왕의 정치·외교적 성향과 연결된다.

그런데 752년(경덕왕 11)에는 예외적으로 신라사 김태렴 등 수백여 명의 대인원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는 그보다 앞서 신라에 入朝한 일본사 山口忌寸人麻呂가 경덕왕에게 신라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한 경덕왕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경덕왕대에 신라와 일본이 비록 외교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불교에 기반을 둔 두 나라 간에 공격이든 사적이든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덕왕은 신라 승 審祥과 밀접히 관련된 일본내의 불교행사에 신라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라문화의 선진성을 알리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여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례는 물론이고 일본의 왕족 및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교역을 통해 왕권강화 및 안정에 도움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8세기에 들어와 천황 중심의 이념이 더욱 심화되면서 신라에 대한 반발심, 열등감, 국가적 경쟁심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75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이 발해를 통해 알게 된 당내의 혼란을 틈타 신라에 대한 침략계획이 구체화되는 등 일본조정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경덕왕은 일본과의 교섭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760년과 76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공식사절을 파견하였다. 물론 이러한 신라측의 대응은 경덕왕대 대일외교상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7세기대 이

래 일본의 九州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신라 본국과 왕래하던 신라계 도래인들부터 신라침략계획을 전해들은 경덕왕이 일본조정내의 사정을 직접 탐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764년에도 경덕왕은 唐使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임시신라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 무렵 당에서는 안사의 난이 진압되었고 일본에서는 신라 침략을 계획하던 민감한 시기였다. 그런데 唐國의 使臣이 발해를 거쳐 신라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唐使의 개인적 부탁에 따라 신라사가 파견되는 등 唐使의 행보에 대해 일본측으로서는 신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일본의 신라침략계획을 주도한 藤原仲麻呂가 난을 일으킨 뒤 그가 몰락함으로써 현실화되지 못했다.

(원고투고일 : 2007. 1. 17,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경덕왕, 대일외교, 정치제도개혁, 증여물, 신라침공계획

<ABSTRACT>

The Situation of East Asia an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under the Reign of King *Gyeongdeok*(景德王) in *Silla* Dynasty

Kim, Sun-sook

The King *Gyeongdeok* had come to the throne as a king of the thirtieth ages in *Silla*. He had put execution into the various policy in order to reinforce with unstable sovereign powers. He had showed a powerful readership in the process. And in order to produce a successor to the throne, he had changed a queen. Therefore he had made a narrow birth to a son, he had installed his little son as the Crown Prince in a hurry.

He had contrived the establishment of a vigorously sovereign power and domestic stability, go through the innovation of established political institutions, a culture enterprise, and so on. In the middle of such domestic circumstances, he had refused the Japan ambassador of arriving in *Silla*.

Also he had one-sidedly send to a gift, and only put on the number of a gift record without a previous notice, go through the *Silla* ambassador of accrediting to Japan. As a result of this Japan had provoked to dissatisfaction. Such his attitude looks the thing which he try to change the gift of a political purpose in line with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By the way this is connected with his diplomatic disposition holding on to a powerful standpoint against a rudeness of the Japan ambassador.

Therefore i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illa* and Japan under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looks over generally, excepting for in the seven hundred and fifty-two years, his rejection against the Japan ambassador

had been frequent. In result, the Japan ambassador had not could take part in the events of the Imperial Court, and there had been little instance well achieved even attendance at the Royal Court. Without exception, the *Silla* ambassador, they had stayed only inside of two months or been justly gone back to except for about four months in the seven hundred and fifty-two years.

Moreover it had not could see any more the educated Japanese monk's sojourn in *Silla* at those times of King *Gyeongdeok*, which had carried out occasionally from the 7th century to in the early part of the 8th century. Although *Silla's* Buddhist culture had been introduced into Japan, and *Simsang*(審祥) of *Silla's* monk had gone still over to Japan in a private level, it seems as though such background had greatly acted on the situation that had accumulated to the capacity of Japanese Buddhist culture to the extent of not directly receiving Buddhist culture from *Silla*, and enough to a national level had could been directly dispatched Japanese monk through *Balhae*(渤海) to *Tang*(唐), China. In my judgement here are influenced by the situation that it had become worse to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illa* and Japan under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Key Words : King *Gyeongdeok*,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Innov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Gift, Scheme to attack against *Silla*